

청년내일채움공제 긴급간담회 개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공론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동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 이하 ‘전대위’)는 11월 28일(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에 대한 긴급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긴급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3년 11월 28일(화) 15: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참석자) ▲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학영, 김영진,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최명석 인천시당 대학생위원장, 김민주 충남도당대학생위원장
 -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수혜자 사회초년생 4명
 - 김준형 원텍오토메이션 중소기업 재직자
 - 김지원 한미마이크로닉스 중소기업 재직자
 - 김지환 시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 장한솔 성균대학교 재학생

금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공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른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삭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써, ▲참석자 내빈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정책수혜 당사자인 사회초년생들에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발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문 전달식, 그리고 ▲피켓 사진 촬영 순서로 진행되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인 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양소영 전대위 위원장은 “청년당사자들과 중소기업에게 호평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 또한 뚜렷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하였다.

이어지는 공동성명문 전달식에서 양소영 전대위 위원장은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 소식을 들은 직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여의도와 지역 중소기업 인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 공동서명운동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동서명연명부를 전달하였다.

마지막 순서인 판넬 퍼포먼스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일자리 부족’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해온 일거양득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사실상 폐지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 학생위원장 양소영 010-843-9588
-------	-----------------	--------------------------